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SIX GOODBYES WE NEVER SAID
가제 : 전하지 못한 여섯 번의 작별 인사
저자 : Candace Ganger
출판사: Wednesday Books
발행일: 2019년 9월 24일
분량 : 313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저자는 상실과 죄책감, 정신 질환을 갖고 살아 가고 있는 두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어떤 필터도 거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들려준다.” -의 저자 레베카 버로우,
* “ 거대한 상실감과 맹렬하게 맞서 싸우는 나이마와 듀의 이야기는 독자의 마음과 영혼까지 치유해줄 것이다.” - 수상작 『It's Not Like It's a Secret』 의 작가 미사 수기우라

나이마는 핸드폰만 계속 만지작거렸다. 아빠가 남긴 메시지는 이제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사실 그 메시지를 듣게 된다 해도 별로 달라질 건 없었다. 아빠가 다시 살아 돌아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빠를 잃은 슬픔이 덜해질 리도 없었다. 군인의 가족이 된다는 건 그런 것이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전통, 명예, 품위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자연스럽게 죽음에 대해 늘 준비하고 있어야 했고,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열음에 싸인 시신을 기다려야 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 지역에서 해병으로 근무했던 아빠의 시신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출발해 도버에 도착했다. 나이마는 단지 다시 볼 수 없는 아빠가 그리워서 괴로워하는 게 아니었다. 나이마를 정말 괴롭게 하는 건 아빠에 대한 엄청난 죄책감이었다. 겉모습은 멀쩡해 보였지만 나이마의 내면에는 거친 토네이도가 몰아치고 있었다. 오랫동안 나이마는 새 엄마 벨과 재혼해버린 아빠를 증오했다. 나이마는 친 엄마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 것도 없었다. 엄마가 나이마를 출산했던 그 날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아직도 낯설기만 한 새 엄마와 자기만 두고 나라를 위해 봉사하겠다고 위험한 전장으로 가버린 아빠가 더 원망스러웠다. 나이마는 아빠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보낸 수 많은 편지에 단 한번도 답장하지 않았고 아빠의 전화도 다 받지 않았다. 나이마는 그렇게 너무나 오랫동안 아빠의 존재를 철저히 무시하며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아빠는 정말 나이마의 인생에서 사라졌고 이제 겨우 한 줌의 재로 남아 금속 항아리에 들어있었다.

벨과 나이마는 그 항아리를 아빠의 고향에 있는 할머니 댁에 갖고 가기로 한다. 아빠의 고향에 도착한 나이마는 할머니 댁 이웃에 사는 듀의 가족을 알게 되었다. 듀와 나이마는 서로 너무나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나이마는 잔인할 정도로 모든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해 사람들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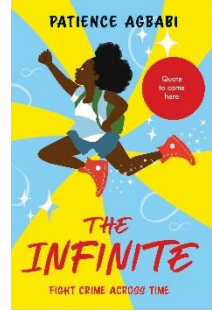
당황하게 만드는 아이였고 7년 동안이나 자신을 헌신적으로 돌봐준 새 엄마 벨에게 여전히 적의를 품고 있었다.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도 나이마는 늘 이기적으로 행동했고 모두가 자신만을 바라봐주길 바랐다. 누구도 그런 나이마를 쉽게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았다. 반면에 듀는 항상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애썼고 다정다감한 예의 바른 소년이었다. 하지만 둘은 누가 봐도 아웃사이더라고 부를만한 십대들이었다. 또한 이 둘은 서로가 아닌 누구와도 공유할 수 없는 비슷한 아픔을 가지고 있었다. 듀는 어릴 때 부모님을 사고로 잃고 한 가정에 입양된 아이였다. 듀는 어린 시절 겪은 사고 때문에 종종 불안 장애를 앓고 있었고 나이마는 하루도 빠짐없이, 한 순간도 빠짐없이, 모든 것에서 패턴을 읽어내야만 마음이 안정되는 심각한 강박증을 갖고 있었다. 처음에 나이마는 녹음기를 들고 다니며 원가를 중얼거리며 다니는 듀를 보며 절대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괴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이마 역시 마시멜로우 조차 딱 여섯 개씩으로 분리에 지퍼백에 넣고 다녀야 마음이 편한 소녀였다. 나이마는 듀가 다른 사람들과 말하는 것보다 녹음기에 대고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을 훨씬 편하게 느끼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어쩌면 듀 역시 자신과 비슷한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나이마는 오랫동안 주변의 모든 사람을 밀어내며 살고 있었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듀의 가족과 어울려 다니며 다시 웃기 시작했다. 듀의 여동생 페이스는 레슬링에 푹 빠진 귀여운 소녀였고 오빠인 듀와 누구보다 다정다감한 사이였다. 듀의 엄마 아빠 역시 항상 따뜻한 미소를 가진 사람들이었고 듀가 공황 상태에 빠질 때마다 의연하게 듀의 곁을 지켜주었다. 나이마는 듀가 자신과는 다르게 고통과 상실감 속에서도 사랑스럽고 즐거운 순간들 또한 누리며 살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나이마 역시 인디애나에 와서 이전보다 훨씬 가족의 사랑과 지지를 받으며 조금씩 마음의 안정을 찾아간다.

이 작품에 나오는 말처럼 둘은 서로의 고통을 함께 바라보며 서로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들 속에 갇혀있을 때 손을 뻗을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되어간다. 누구의 슬픔이 더 고통스러울까? 매일 같이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는 나이마? 고통스러운 기억을 이겨내고 매일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해야 하는 듀? 둘은 살면서 한번도 기대한 적 없었던 만남과 서로의 우정을 통해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된다. 더 이상 삶의 비극에 짓눌리지 않고 고통을 다루는 방법을 함께 찾아가게 된다. 저자는 이 책의 서문에서 자신 역시 나이마와 듀가 겪고 있는 정신 질환을 겪고 있다고 고백하며 두 인물이 자신의 모습을 닮았다고 말한 바 있다. 남에게 설βολ리 말하지 못할 상실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싶은 독자들에게 추천할만한 책이다.

<저자 소개>

캔더스 갱어 (Candace Ganger) 는 가수, 테크놀로지 웹 사이트 편집자, 베스트셀러 소설가이자 수상 경력이있는 논픽션 작가와 같은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작가다.

제목 : THE INFINITE
가제 : 끝나지 않을 시간 여행
저자 : Patience Agbabi
출판사: Canongate Books
발행일: 2020년 4월 2일
분량 : 280페이지
장르 : 모험/8-12세/시리즈 예정



***특별한 재능을 가진 특별한 주인공들의 시간 여행 이야기**

***시간을 여행하는 능력이 있고 숫자를 무척 좋아하는, 자폐증이 있는 소녀 이야기**

2020년 어느 날, 엘르는 눈을 떴다. 마치 두 눈이 카메라 렌즈라도 되는 것처럼 점차 초점이 잡혔고 눈 앞에 보이는 것들이 조금씩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엘르는 학교 운동장 트랙 옆 잔디밭 위에 앉아 있었다. 시계를 보니 다섯 시였다. 머리가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고 결국 잔디밭에 토까지 했다. 방금 전까지 교실 복도에 있었던 엘르가 갑자기 이곳에 나타났다는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엘르는 1시간 59분이 지난 미래에 와 있었다. 엘르는 평범한 아이들과 달랐다. 여기서 말하는 그 다름은 엘르가 가진 자폐증을 말하는 게 아니다. 엘르는 사실 한 만화의 제목처럼 말 그대로 ‘시간을 달리는 소녀’였다.

엘르는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식물인간 상태였던 엄마의 몸에서 태어났다. 엄마의 죽음 후 아빠는 고국인 나이지리아로 떠나 새 가정을 꾸렸고, 엘르는 홀로 남아 할머니를 엄마처럼 여기고 자랐다. 기억조차 나지 않는 엄마 아빠를 그리워할 이유가 없었다. 엘르는 오히려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보다 더 활기찬 소녀였다. 게다가 엘르는 최근에 학교에서 미래, 2048년의 타임 스쿼드 센터로 가는 여행단에 선발되어 더 신이 나 있었다. 반에서 단 네 명만 갈 수 있는 여행이었고 선발 단원들 외에는 아무도 이 여행에 대해 알지 못했다. 이 여행의 특별한 점은 또 있었다. 사람들은 엘르처럼 2월 29일에 태어난 아이들을 ‘리플링스(Leaplings)’라고 불렀는데 이 특별한 날 태어난 아이들은 정말 소수였다. 하지만 리플링스들 중에서도 시간 여행 능력을 타고 난 아이들은 더욱 드물었다. 수학 천재인 엘르의 단짝 친구 빅벤은 리플링스로 태어나 시간 여행 능력까지 갖고 태어날 확률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라고 말했다. 바로 이 능력을 타고난 아이들 중 한 명이 엘르였고 엘르가 다니는 학교 역시 전세계에서 온 리플링스들을 위한 학교였다. 겉으로 보기에 이 학교는 억만장자가 지은 멋진 건축물처럼 보였다. 마을 사람들 중 누구도 이 학교가 이토록 특별한 학교인지 몰랐다. 리플링스들의 존재는 극비 사항이기 때문이었다,

엘르가 학교 수업 중 제일 좋아하는 시간은 PPF시간이었다. 이 수업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만 배우는 일반적인 역사 수업과 달리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해서 동시에 배우는 과목이었다. 타임 스쿼드 센터에 가서 배우게 될 일들과 깊은 관련이 있는 과목이었다. 타임

스쿼드 센터는 범죄 사건을 해결하는 본부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2020년에 살인을 저지르고 그 시체를 1960년으로 가져가 어딘가에 숨기면 타임스쿼드 센터 사람들은 범인과 마찬가지로 시간을 넘나들며 사건의 실마리를 찾고 범인을 잡아냈다.

여행을 떠나기 전 학교에서 열린 준비 수업에서, 엘르는 열심히 준비해온 발표를 하고 있었다. 발표 도중 실수를 하는 바람에 모두가 엘르를 보며 비웃고 있던 그 때, 엘르는 'SOS, L'이라고만 적혀있는 수상한 메시지 한 통을 받았다. 그 메시지는 바로 2048년 미래에서 온 메시지였고 내용으로 보아 누군가가 긴급히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다. 2048년은 곧 시간 여행으로 가게 될 해였다. 엘르는 혼란에 빠졌다. 누가, 왜, 어떻게 자신의 번호를 알고 메시지를 보낸 것일까? 어쩌면 엘르가 미래에 벌어질 나쁜 일을 막을 수 있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아직 엘르는 혼자서 그렇게 먼 미래까지 여행할 법적 권한이 없었고 한 번이라도 그런 일을 시도했다간 리플링스들만 가는 소년원에 가게 될지도 몰랐다.

복잡한 생각은 뒤로 하고 엘르는 드디어 2048년 1월로 떠난다. 2048년의 1월은 겨울이라고 하기엔 너무 더웠고 하늘에는 자동차가 날아다니고 있었다. 또한 정책에 따라 한 가정당 한 자녀만 출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인구 수도 훨씬 줄어들어 있었다. 드디어 센터에 입장하자 센터의 관장인 밀레니아가 엘르와 다른 학교 친구들을 반갑게 맞이해주었다. 밀레니아는 환영 연설에서 이곳에 견학 온 리플링스들이 '현재'로 돌아가는 것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능력을 남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 큰 곤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다양한 주제의 워크샵에서 엘르는 환경상의 이유로 육류 대신 식물성 재료들로 스테이크를 만드는 법부터 제빵 기술까지 배우며 매일 흥미로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다. 또한 워크샵에 참가하는 동안 세계 각국에서 온 리플링스 친구들도 사귀게 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엘르는 곧 이곳에서 만난 모두를 쉽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직감할 수 있었다. 친구들은 다른 시간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고 엘르는 점점 미래에서 온 메시지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된다. 엘르는 실종된 혹은 스스로 사라져버린 친구들을 찾지 못하면 이 세계의 미래도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저마다의 단점과 약점을 가졌지만 마음만은 따뜻한 다양한 인물들과 작가의 상상력이 돋보이는 흥미로운 소설이다.

<저자 소개>

페이션스 아그바비 (Patience Agbabi)는 여러 영국 대학에서 문예창작 강의를 맡았고 시인으로도 활동하며 여러 차례 수상한 바 있다. 저자는 9년 전 자폐증을 진단 받은 아들 때문에 자폐증과 관련된 여러 책을 탐독하던 중 위 소설에 대한 영감을 얻게 되었다고 밝혔다.